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5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068호 1판 (음력 7월 20일) 2015년 9월 2일 수요일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오는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1일 오후 전당 내 어린이문화원 옥상 놀이터에서 ‘움직이는 집’이라는 놀이프로그램이 시연되고 있다. ‘움직이는 집’은 어린이들이 천과 줄을 이용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양의 집을 짓는 놀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동文서답’

문재인 대표, 광주·전남기자간담회 … “친노패권도 분당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일, 9월 중 당 혁신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주장에 대해 “당 지도부 흔들기”라고 일축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광주·전남 국회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그런 주장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이 어려움에 처해서 생겨났던 지도부 흔들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대선 출마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선은 총선 후 논의돼야 한다. 우리는 총선 승리가 절박하고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무슨 대선이 있겠느냐”며 “저 개인적으로도 (당이) 총선에서 좋은 성적으로 내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평가되면 그 이후에 제 정치적인 미래가 있겠냐”고 답했다. 이 같은 문 대표의 발언은 내년 총선 때까지 사퇴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하에 총선을 치른 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친노패권주의 청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 시점에서 친노패권주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한 뒤 “오히려 대표가 너무 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당론’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 대표는 “당내에 분당은 없다”며 “신당이니 분당이니 하는 것은 거꾸로 우리 야권을 분열시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나 호남민심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전당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직제와 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 문 대표는 “이번에 인원이 확정된 것을 보니 광주시가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400명 이상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절반도 안 되는 150명선으로 결정 했다”며 “그것으로 부족하니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계속 요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콘텐츠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요청한 800억 정도 되는 국비예산은 제대로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표는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호남홀대론은 제가 대선과 전대에서 경쟁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에 대한 공격 논리로 주장했던 것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제는 오해를 씻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 대표가 오는 3일 광주시와 예산정책간담회를 위해 광주를 방문하기에 앞서 자청해서 이뤄진 것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공항 활성화 인력부족이 ‘발목’

아시아나항공, 탑승객 수속·화물 운반 등 인력 30→16명 감축

국제선 증편 못해 여행상품 취소… 전남도, 공항공사에 직영요청

포화상태인 인천, 제주공항과 함께 전국에서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3개 공항 중 하나인 무안공항이 조업인력 부족으로 국제선 증편 및 이를 통한 공항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무안국제공항에는 북경 주 2회, 상해 주 4회, 천진 주 3회 등 3개 국제노선과 제주 주 7회 등 1개 국내노선이 운항중이다. 메르스 여파로 중단됐던 절강성 영파와 강서성 남창, 산둥성 린이 인바운드(무안공항 도착) 노선도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무안공항의 아웃바운드(무안공항 출발) 노선은 중국 연길, 베트남 다낭·나트랑 칸란, 몽골 울란바트로 등 4곳이 있다.

하지만 탑승객 수속과 화물 운반 등 지상 조업 분야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인력이 부족해 무안공항이 24시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에서 지상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항공 이용자들이 급감하자 최근 관련 인력을 30명에서 16명으로 절반 가량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무안공항의 장점을 살려 밤과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관광상품을 준비한 여행사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광주의 J여행사는 최근 일본 기타큐슈공항에서 무안공항으로 취항하려던 항공기 운항시간을 변경하면서 일본 측 파트너와 계약을 파기했다. J여행사 측은 오는 10월 초부터 기타큐슈공항에서 전세기를 밤 11시 30분에 띄우고, 다음날 새벽 5시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상품을 판매하려 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이 “인력이 부족해 지상조업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 결국 기타큐슈 출발 시간을 새벽 1시 50분으로 조정해야 했다. 여행사는 이에 따라 별 수 없이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만 일단 운항하기로 했다. 일본 파트너와 계약이 파기되면서 일본관광객의 전남 방문이 무산돼 지역경제에 별다른 보탬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숙박료가 추가되면서 그에 따른 여행사의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다른 여행사에서도 24시간의 운항이 가능한 무안공항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 상품을 내놓으려다 이 같은 현실에서는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어 상품 출시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최근 한국공항공사 측에 단기적으로는 조업인력 보강을, 장기적으로는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공항 조업을 직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여행사의 불편을 최소화해 노선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한국공항공사 측에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Dream [꿈], Truth [진리] 가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수시모집 062)605-1114

2019 세계수영 ‘대형 수조’에서 치른다

월드컵경기장 등에 임시 설치

남부대수영장선 다이빙 경기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임시수조에서 열릴 전망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등이 열릴 주경기장은 임시수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열린 러시아 카잔 대회도 임시수조에서 대회가 열렸으며 국제수영연맹(FINA)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설치와 철거가 쉽고 비용도 신축 등에 비해 현저히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남부대 수영장의 관람석 규모가 FINA 규정(1만5000석)에 크게 부족한 3300석에 불과한 것도 이유가 됐다.

광주시는 남부대 가변 관람석 추가 설치에 350억원, 수영장 신축에는 6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치 및 철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임시수조 설치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대회와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수구 등이 열릴 임시수조 설치 장소로는 광주월드컵경기장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이 검토되고 있다. 남부대 수영장은 다이빙 경기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치 장소가 야외일 경우 태풍 등 비바람 불 때 대회 진행에 애로가 있다.

광주시는 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장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2019년 7~8월께 열릴 예정이며 선수와 임원 등 1만2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연말까지 구성해야 하는 대회 조직위 관련 예산 46억원이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조직위 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